

인터뷰 질문지

1. 종친회

[질문 일반]

- [종파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언제 처음 들었는가. 내용은. 누구에게서.
- 자부심이 생겼는지
- 조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 계기
- 조상에 대한 평가
- 종친회활동에 있어서 [종파의 역사적 인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기념관 세우고 하면서 종친회 활성화가 되었는지.
- 이러한 사업들이 종친회 회원 간의 친밀감을 높여주는지.
- 회원 규모
- 본인에게 있어 종친회의 중요성
- 회장에 대한 평가/변화
- 친한 사람 규모
-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 직장을 구해달라고 하면
- 경조사에의 참여
-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하면

3. 향우회

○ 파일ID 3-1 질문지

- 면접대상자: [소 지역 단위] 향우회 총무, 읍면단위 향우회 총무

1. 향우회 창립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이게 되었고, 향우회 역사를 통틀어 조직 활동의 수준과 내용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
2. 다른 지역 향우회 집단에 비해 [가입한] 향우회가 규모, 활동 등의 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며 어떻게 생각하는가?
3. 귀하는 향우회에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또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그 밖의 지역과 관련된 모임에는 참여하는가?
4. 읍면 단위 향우회 중 가장 규모도 크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소 지역 단위] 향우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향우회 사업이나 [소 지역 단위] 향우회 역사와 활동, 특성은 무엇인가?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회원들 간의 관계는?
5. 중앙향우회와 [소 지역 단위] 향우회와의 관계는? 좋은 점? 나쁜 점? 개선할 점?
6. 읍면 향우회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7. 지역의식, 고향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고향사람을 만나면 어떤 감정, 느낌인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한 출향 인사들은 고향과의 지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적 일체감을 공고화시키고 자녀들에게 고향을 학습시키는가?
8. 규범, 기대가 깨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처리되며,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가? (보충 설명 필요)
9. 지역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역과 별개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없는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그러한가?
10. 기타 사항(개인적 관계망 관련 내용, 개인사 등 인터뷰를 하면서 흐름에 맞춰 질문)

○ 파일ID 3-3, 3-4 질문지

- 3-3 면접대상자: 지역 기반 모임 명예회장, 전 종친회 회장
- 3-4 면접대상자: 지역 기반 모임 회장

■ 조직의 역사 및 특성

1. 오랫동안 향우회를 맡아서 이끌어오셨는데, 향우회를 만들게 된 동기라든가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향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 [지역]을 연고로 하는 다른 조직들은 오래전부터 조직되었던 반면에 향우회는 만들어진 시기도 늦었고, 그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타 지역] 향우회와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계기로 [타 지역] 향우회와도 교류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4. 향우회를 이끌어오면서 000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 원칙이랄까, 방향이랄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구성원 간의 관계 및 호혜성

5. 000님은 정기모임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포함해서 평소에 향우회 회원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또 만나면 무슨 말씀을 나누시고 무엇을 하시나요?
6. 지금까지 사회생활, 또는 개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경우에 000님은 친하신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보증, 조언, 부탁 등)
7. 아주 친하신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000님은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 집단의 결속력, 폐쇄성

8. 향우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눈에 거슬리거나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 회원이 있었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며 그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9. 신년하례식에 가서 ‘빠기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배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특정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10. 향우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들의 추천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우회인데 고향 출신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원 가입이 엄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본인은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 회원 추천을 받지 못해서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 고향의식, 정체감

11. 000님에게 고향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고향사람은 만나면 어떤 감정이십니까?
12. 항상 고향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언제 고향 생각이 가장 많이 나십니까? 000님께서 ‘나는 [이 지역]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절실하게 드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13. 자제분들은 [이 지역]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자제분들에게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14. 몇 해 전에 지역주의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선거기간 중에는 아예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같은 연고모임을 금지하는 규제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기타

○ 파일ID 3-5 질문지

• 면접대상자: 평회원

1. 간단한 소개와 하는 일은? 서울에선 얼마나 계셨는지? [고향]에는 자주 가시는지? 아직 가족 및 친지 분들이 [지역]에 계시는지? [지역]과 관계는 어떠신지?
2. 향우회에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 어떤 혜택을 받았나? 그 밖의 지역과 관련된 모임에 참여하는가? 좋은 점이 있다면?
3. 향우회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는? 왜?
4. 자주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의 직업, 본인의 연고 등 때문인가?
5. 읍면단위향우회에는 참여하는가?
6. 지역의식, 고향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고향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인가? 어떻게 지

역적 일체감을 공고화시키고 자녀들에게 고향을 학습시키는가?

7. 향우회나 고향을 통해 공유하는 규범이나 기대가 깨졌을 때가 있는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8.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에 향우회나 동창회 모임을 못 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9. 가장 '[이 지역] 사람'이라고 절감하는 때는 언제 어떤 경우에서인가?
10. 기타.

5. 시민단체

- 가입 경위
- 활동 상황: 소규모 단체 가입 여부, 직위, 참여 정도
- 조직 활동 등에 대한 불만 사항
- 조직 활동의 활발 혹은 저조? 그 이유
- 조직 내 인간관계
: 친한 사이-친한 사이의 척도 제시: 금전거래 여부, 취직 부탁, 부모님끼리 아는 사이, 여행은 같이 다니는지, 친구+시민단체 회원이 본인 집에 머무르고 싶다고 한다면, 술은 마시는지 등, 사적관계 vs 공적관계, 만남의 빈도, 만남의 방식
- 내부 규범
- 경조사 등 집안일 챙기기
- 동창회 관계와 시민단체 관계의 비교
- 단체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인간관계 측면
- 단체 내에서 친한 사람들의 특징: 나이, 교육 수준 등

7. 어촌계

- 어촌계에 대한 설명, 운영원리 등
- 어촌계의 역할
- 어촌계장의 일
- 어촌계의 필요성
- 보상
- 어촌계 제명
- 어촌계에 대한 희망 사항

: 만약에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 같은 경우는 바로 나가서 100% 고기를 잡으면 100% 수입을 하는데, 해녀 같은 경우는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어촌계에 돈을 내야 되니까 힘들다 이런 걸로 해서 예전에 분쟁이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런 분쟁이 발생하면 어촌 계원들은 문제화해서. 선거를 하거나 총회를 해서 이걸 해결을 하시는지...

- 갈등 해결 방식

8. 인력시장

○ 파일ID 8-2 질문지

• 면접대상자: 건설 현장 소장

1.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건설 일을 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무엇인가? 언제부터 어떻게 건설 일을 하게 되었나? 이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2. 기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배웠는지?
3.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임이 있나? 일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도움과 지원을 주고받는가?
4. 현장 소장 일을 하면 현장의 인력을 총책임 관리할 텐데,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맺고 유지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
5. IMF 이후 특히나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예전과 비교하여 건설 일을 하는데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규모, 동료들 간의 관계, 작업 방식 등.
6. 현장의 인력 수급 구조는 어떠한가?
7. 건설업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하는가? 건설 일을 하는 게 다른 직업에 비해 좋은 점은? 나쁜 점은?
8. 현장 소장, 작업반장, 세화(?), 기능공, 데모도, 일당 잡부 등의 관계는 어떤가? 예전과 달라진 점은?
9. 동료들이나 혹은 아랫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지내던 사람과 안 좋아진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10. 현장 소장으로서 인력 동원을 어떻게 하는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하는가?
11. 기타.

○ 파일ID 8-4 질문지

• 면접대상자: 건설 일용 잡부

1. 건설 일을 하시게 된 계기와 동기, 언제부터 어떻게,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2. 기능과 기술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습득했나? 이유는?
3.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임이 있나? 회비를 내는 모임이 있는가? 일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어떤 도움과 지원을 주고받는가?
4. IMF 이전과 이후 어떤 차이가 있나? 경기가 어려워지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5. 규범, 제재. 잘 지내던 사람과 안 좋아진 경우가 있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6. 건설업 관련 일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하는지? 소속감은?
7. 건설 일을 하면서 (다른 직업에 비해) 좋은 점은? 나쁜 점은? 도움을 받는 게 있다면?
8.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서로 도와주거나 하는지?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거나 부모님 초상을 당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지, 며칠간 집에 놀러 와서 묵을 수 있는지, 언제든지 같이 불러서 술 마시거나 그럴 수 있는지?

9. 작업반장, 기능공, 데모도, 잡부, 등의 관계는 어떠한지?
10. 기타

○ 파일ID 8-5 질문지

• 면접대상자: 구청 과장

1.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얼마나 오래?
2. 구내 인력소개소는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3. 예전과 최근의 차이는 어떠한가? 규모에서나 실질적 내용에서나?
4. 인력소개업체들과 관계는 어떠한가? 면식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가?
5. 더불어 건설일용직근로자 개개인들과의 관계도 있는가?
6. 구청 혹은 공공 기관의 입장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7. 개인적으로는 요즘의 인력소개업체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8. 무료소개소와 유료소개소 둘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차이는?
9. 취업정보센터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일용직근로자와 관련해서 공공 기관이 직접 인력 소개, 관리하는 기관은 없는가? 있다면 공공직업소개소의 역할은 어떤?
10. 그런 공공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1. 관련 모임이 있는가?
12. 소개업체주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교류가 있나?
13. 기타